



“한국에 와서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알게 된 것이지요.”

4교구, 조선족 중국 교포 신춘자 성도



50여 생을 중국 목단강에서 선생님이로 일하다 퇴직한 신춘자씨는 중국에서는 꽤 잘나가는 조선족 교포였다. 하지만 예전부터 좋지 않았던 시력이 퇴직 후 점차 악화되자 선진 시력에서의 눈 수술과 수술비 마련을 위해 2007년 무작정 한국행을 감행했다.

하지만 낯선 이방인에게 한국 생활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연고지 없는 타국에 혼자 들어왔기에 밀려드는 외로움도 컸지만, 경험을 살려 중국어 가르치기 등 교육 쪽 일자리를 얻고자 했던 희망이 나이 등의 문제로 어렵게 되자 시름은 더 커졌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쯤 4교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한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초등학교 두 아이에게 중국말을 가르치고, 가사일을 도와주는 일로, 그녀는 모든 정성을 쏟고 또 쏟아 열심을 다했다. 하지만 그 때쯤 또 한 번의 시련이 왔다. 망가진 왼쪽 눈 대신, 오른쪽 눈에 의지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 눈마저 거의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다. 이 때 그녀의 상황을 듣고 병원을 알아봐주고,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며 그녀를 배려해준 것은 바로

그녀가 일하던 집의 안주인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지요. 그 때 주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모님의 배려로 새 삶을 얻게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성경책을 선물로 사주시며 저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지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기도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보는지도 몰랐지만, 같은 한국말인데도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던지요. 하지만 온몸에 전해지는 은혜로운 분위기와 가슴에 와 닿는 무엇인가가 몽클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속한 소그룹에서 많은 분들이 눈 수술 전에 함께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는 것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고마웠다는 그녀. 목적이 이끄는 40일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선 아장아장 걸음마하는 아이 같은 초신자예요. 기도하는 법, 성격책 보는 법 등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해요. 새 삶을 살게 된 거 같아요.” 혼자만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할 때엔 ‘꼭 교회 나가라’는 말을 빼먹지 않는다는 그녀. 중년의 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한 것 투성이’라며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성실한 초신자로서의 진실함이 묻어난다.

전소영 기자

12단계 성경공부 4단계 개강 현장

12단계의 성경공부가 개강을 맞이했다. 3단계까지는 기초작업을 했다면, 4단계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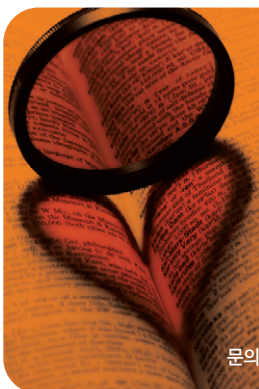
5월 6일 첫 강의는 창조 이야기로 창세기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 성경이 왜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지를 살펴보고 성경전체에서 창세기를 통해 발견하는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그 화두였다.

이번 개강 축하 공연은 남성합창단(지휘 권덕원)



의 순서가 있었고, 다가오는 5월 13일(수) 두번째 시간에는 최수종 성도의 간증이 있을 예정이다.

김주형 전도사



도서실사역팀
새 책 기증을 받습니다
(5년 이내 새 책)
문의: 최정숙 집사: 016.470.0806

나현수 전도사 목사 안수



2009년 4월 23일(목) 분당 할렐루야교회당에서 나현수전도사의 목사안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의 귀한 사역자로 직분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교우님들을
새가족 사역팀으로
인도해 주세요

봉사부 탐방기-새가족사역팀



4부 예배가 마치고 모두가 집으로 향하는 시간 오후 3시.

수많은 교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오히려 북적이는 곳이 있었다.

지하 1층 식당으로 걸음을 향하면,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새가족 사역팀 분들이다. 마침 4월26일 2009년도 4기 새가족양육 수료식이 있는 날이다.

이번 수료인원은 110명으로 이제 주님의 교회 새가족 정식교인으로 비로소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되었고, 나날이 늘어나는 만큼 새가족으로 인해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는 사역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번 봉사부 탐방은 새가족 사역팀으로 이분들은 안내데스크에서 등록안내와 매주 새가족 교육을 맡고 있다. 양육은 4층대회의실에서 매월 4주간 (1,2,3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 우리의구원자예수그리스도, 신앙생활과 성장에 관한 양육교육과 교제를, 마지막 주는 담임 목사님의 환영과 교제로 환영과 수료식을 겸한 시간)으로 구성되었고, 양육 팀에서는 교회에 정착 과정(수료 후 해당구역으로 연결, 적절한 사역배치)도 돕고 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해야만 정식교인이 된다고 하니 새로 오신 교우 분들은 필히 참석하시어 교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기를 바라며, 새가족 양육팀에서는 우리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새가족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낮설어 하는 분을 보거든 따뜻하게 새가족 사역팀으로 인도하는 돌봄의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바란다

김희선 기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12)”

네 어머니가 고생이 많다...

엄마~밤...



|오늘의 말씀|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 장 2-4절

통 권 _ 제 248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9년 5월 10일

함글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2009 어린이 무지개축제

주님의 숲에 사는 신나는 어린이

어린이날 은 매년 5월 5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다.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1922년 방정환(方定煥)의 지도 아래 5월1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으로 출발하여 8.15 광복이후, 건국준비위원회는 1946년부터 날짜를 5월 5일로 정하여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시작되었다.

올해 어린이 날은 예년에 비해 더웠지만, 7년째 접어드는 무지개 축제에는 주님의교회 어린이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 가족들의 참여가 많아 주님의교회 마당에 모여 재잘거리며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표정은 햇살보다 눈이 부시도록 화창하다. 편집부

<주요기사>

2 어린이 무지개축제예배 화보

3 중보기도세미나 (3면)

3 목사님 미국 동정

4 주님의피플_신춘자성도 (4면)

어린이 무지개축제

온가족이 참여하는 명랑운동회, 먹거리장터, 에어바운스와 게임등 다양한 체험활동, 쏘티와 함께하는 뮤지컬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준 무지개 축제현장을 담아보았다.



백팀 VS 홍팀 어느팀 박이 먼저터지나 있는 힘껏 던져보는 어린이와 부모님들

악어입에서 탈출하라! 슬라이드에서 즐겁게 노는 어린이들



실외에서 운동하느라 지친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쏘티 뮤지컬 공연



은근하게 전해오는 무게의 압박 힘을 합해 어린이를 보트에 태워 빨리 달리는 게임



어린이 만세! 예수님 만세! 바이킹 타며 마음껏 소리치는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빼제로로 변장시킨 담임목사님의 재미있는 모습

목사님 미국동정

미국의 교회의 흐름은 한국교회의 미래의 흐름을 가늠하게 한다

이번 여정의 스타일은 단연 “찍튀”와 “떡튀”!
 뽀뽀한 일정을 소화하러니 (간단히) 먹고 튀고... (이곳저곳을 신속히 보느라) 찍고 튀고... 가끔은 (시간이 없어) 굶튀(굶고튀고)까지.... 그덕에 할 것 다하고 볼 것 다 봤으니 결론은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선 만장일치로 입증된 것은 담임목사님의 가이드능력.. 일명 “가이드박” 이라고 나 할까!

짧은 지면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일정을 살짝 살짝 떠올려보면 이러하다.

뉴욕에 도착한 후 첫 방문지는 프린스턴대학. 이곳은 박원호 담임목사님이 졸업한 곳이기도 하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프린스턴 신학교 캠퍼스와 도서관 시스템이 학구적 열의를 일깨운다. 이곳에서의 빼놓을 수 없는 만남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부친과 함께 오셔서 섬기셨던 마펫목사님과의 만남이다. 우리나라 선교초기의 회귀본 사진들을 소개해주시고, (90여세의 연세로 인하여 다시 만날 기약을 할 수 없기에) 하늘을 가리키며 천국에서 만나자 하시며 헤어지기전 측석에서 축도해주시던 몽클함의 시간이 기억에 새롭다.

워싱턴에서 방문한 여러 교회들, 기념관, 박물관 등 짧은 일정에 부지런히 견고 뛰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장소는 홀로코스트기념관... 무참히 죽어간 유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곳이다. 인간의 본성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는 것 같고 역설적으로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

랭캐스터에서의 초대형성극관람... 전면무대뿐 아니라 좌우 복도를 모두 이용하여 펼쳐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 미국에 갈 기회가 있거든 꼭 둘러보시라!

그 다음 코스는 뉴욕. 세계 여러 민족들의 다양한 얼굴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싶다. 길모퉁이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다양한 얼굴을 보는 것 만으로도 은혜가 된다. 여러교회들, 미술관 등을 방문하고, 기왕에 당도한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라이온킹 관람은 이번 여중 중의 또 하나의 팁.

뉴욕을 떠나 시카고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윌로우 크릭교회 예배에 참여하였다. 역시 구도자들을 위하여 잘 짜여진 예배는 독특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



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한 열정에 의해 살아움직이는 교회를 체험하는 일정이었다.

시카고에서 라스베가스를 거쳐 그랜드캐년을 렌트카로 왕복 약 아홉시간을 줄달음치는 여정 속에 한편으로는 풍광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함께 목회비전을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채웠다.

마지막 경유지 LA에서 방문한 교회들 중 기억할 교회는 단연 새들백교회. 목적이이끄는 삶 40일 캠페인으로 낮익은 그 이름하여 새들백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투자하는 교회임을 건물과 시설들을 통하여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미래에 어떤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다. 주님의교회 역시 다음세대를 향한 고민을 하는 교회이니만큼 벤치마킹할 가치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미국 여정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민교회 사역자들과의 만남이다. 이민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고단한 현실과 고충과 사명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만 다른 이야기들은 각설하고 정리해야겠다.

미국의 교회의 흐름은 한국교회의 미래의 흐름을 가늠하게 한다는 면에서 이번 일정은 목회자로서 교회의 비전을 그리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일정이 끝나갈수록 떠오르는 생각은 기왕이면 좀더 일찍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 특히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세워갈 리더그룹이 올 수 있다면 더욱 좋으리라는 생각이다.

머지않아 주님의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을 벤치마킹하는 교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지어본다. 하나님나라향한 온 교우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그날이 현실이 되리라!

*사진: 프린스턴 신학교와 도서관 마펫목사님 부부와 함께
 우동윤 목사

학원선교봉사자 야외모임

서로 축복하고 사명을 세우는 시간



주님의교회에는 정신여중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120여명의 기도어머니들(학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일을 진행하는 학원선교봉사자들이 지난 4월 30일, 과천 경마공원에서 야외모임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명을 세우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열매를 거둔 학원봉사자들의 사역은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시 126:6)

박해성 목사

제 11기 중보기도 세미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것을 다짐하며...



지난 4월 21일과 23일 저녁에 주님의교회 제11기 중보기도세미나가 열렸습니다. 80여명이 신청하고 100여명이 참석하는 풍성한 잔치로 진행된 이번 중보기도세미나에서는 중보기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속의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만났고, ‘중보기도의 능력과 실제와 응답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함으로써, 성도들은 중보기도자로서의 자세를 정립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는 우리교회 중보기도 역사와 실제 사역의 내용과 방법들을 선배들로부터 배우면서 적은 수로 시작하여 올해로 200여명으로 늘어난 중보기도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을 다짐했고, 성도들은 각각 레위 팀, 라파 팀, 엘리야 팀, 미션 팀, 비전 팀, 모세 팀으로 소속이 되어 릴레이 기도시간을 정해서 성실하게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며 식탁교제로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아침운동으로 건강을 채우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거룩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주님의교회 가족들이 오늘 함께하는 이 아침, 복된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달 놀토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닝콜"을 합니다.

박해성 목사

놀라운 토요일

예수님의 모닝콜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며 식탁교제로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아침운동으로 건강을 채우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거룩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주님의교회 가족들이 오늘 함께하는 이 아침, 복된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달 놀토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닝콜"을 합니다.